

포교사단 소식

13일, 직지사서 창단 11주년 법회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임희웅) 11주년 출범 기념법회가 오는 13일 오전11시 제8교구본사 직지사 만덕전에서 열린다. 이날 법회에는 포교원장 혜총스님이 참석해 법문하며 모범 포교사에 대한 표창이 진행된다. 지난 2월24일 진행된 상법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신행활동이 우수한 포교사에게 포교원장상과 포교원장상, 총재상, 단장상이 수여되며 후원자 감사패 전달도 예정돼 있다.

임희웅 단장은 “창립 11주년을 맞은 포교사단은 올해 광역시단 분단과 지역 사찰과 연대 강화를 통해 전법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번 창단 기념법회는 전국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포교사들이 참석해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념법회 후인 오후1시부터 16회 포교사 고시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된다.

서울지역단, 포살법회 봉행

서울지역단(단장 임희웅) 포살법회가 지난 2월17일 서울 개운사에서 열렸다. <금강경> 독송과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후 시작된 이날 법회에는 개운사 주지 범해스님이 법사로 나서 <범망경>을 주제로 법문했다. 스님은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배를 의지해야 하고 어두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등불을 의지해야 하듯이 부처님 법을 따르는 이는 삼보를 의지하고 계율을 잘 지켜야 한다”며 “포교 일선

의 첫째 덕목으로 전도는 상대를 감화 감동시켜야 하며 부처님 말씀을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참가자들은 보살계 심중대계를 스님과 함께 합송했다. 임희웅 단장은 이날 신년하례에서 “변화된 시선으로 맞이해 주신 주지 스님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며 “실현하는 포교, 보여주는 포교로 새롭게 거듭나는 포교사단의 포교사가 되자”고 의견을 모았다.

광주전남지역단 소년원에 좌복 보시

광주전남지역단 이소영 포교사와 신도들이 교정교화1팀(팀장 이재연)이 법회를 주관하는 광주소년원 법당에 좌복과 책자를 보시했다. 전통무용가로 문화예술팀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소영 포교사는 지난해 포교사 품수를 받은 새내기 포교사다. 현재 지역단 자원봉사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포교사는 최근 광주소년원 일요법회에 참석했다가 좌복이 낡고 작아서 법회동

안 불편해 하는 원생들의 모습을 보고 주위 신도들과 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좌복을 선물 받은 원생들은 기뻐하며 이후 함께 절 수행을 하자고 약속하는 등 화기에애한 분위기가 됐다. 한편 교정교화팀은 지난 10년간 매주 일요일마다 광주소년원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하며, 부처님오신날 행사 및 여불보교학교 등 각종 행사를 통해 원생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정리=어현경 기자**

명상연구원 공개강좌 5일, 장현갑교수 초청

명상의 대중화를 추구하는 사단법인 명상연구원(이사장 세민스님, 원장 현총스님)은 오는 5일 오후 4시 서울 후암동 명상연구원 수련실

에서 일반인으로 대상으로 명상보급을 위한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명상의 뇌과학 - 명상을 하면 마음과 뇌가 바뀐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공개강좌는 베스트셀러 <붓다 브레인>의 역자로 잘 알려진 장현갑 영남대 심리학과 명예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염태규 기자**

종단 수익사업에 교구본사 동참

마곡사 수덕사 쌍계사 백양사 봉선사 결의 조계사는 상조사업에 본·말사주지스님 가입

제33대 조계종 총무원이 ‘종단 재정구조 다변화사업’을 9대 핵심과제로 선정 한 뒤, 상조와 생수사업을 우선 사업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교구본사들이 잇따라 교구종회를 열고 종단 수익사업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2월15일 열린 제6교구본사 마곡사(주지 원혜스님) 교구종회를 시작으로 18일에는 제7교구본사 수덕사(주지 응산스님)와 제13교구본사 쌍계사(주지 성조스님), 22일에는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시몽스님)와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인묵스님) 등이 잇따라 교구종회를 열어 본말사가 종단 수익사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결의했다.

이 가운데 수덕사는 종단에서 판매하고 있는 ‘산은 산이요 물은 감(甘)이로다’ 생수 500ml 20병들이 1250상자(10파레트)를 교구종회에서 구매하기로 결의한 뒤 수덕사 주지 응산스님이 지난 2월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구매신청서와 대금을 전달했다.

또한 수덕사는 조계종과 재향군

인회 상조회가 함께 펼치고 있는 상조사업에 본·말사 주지 전원이 먼저 가입하기로 결의하고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또한 생수 ‘감’을 제일 많이 구매하고 사중에 상조가입 부스를 설치한 서울 조계사(주지 토진스님)는 지난 2월22일 총무원 아침조회를 통해 종단 상조사업에 종무원부터 먼저 동참하기로 결의하며 종단 수익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직할교구는 지난 2월15일 열린 교구종회에서 “직할교구 주지인 사고과평과 때 종단 수익사업에 대한 동참 여부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말사 스님들에게 전하며 승려노후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종단 수익사업에 수의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2월24일 수덕사 주지 응산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생수 1250박스를 구매하겠다는 구매신청서와 대금을 전달했다.

이처럼 전국 교구본사들이 교구종회에서 종단 수익사업에 잇따라 동참하겠다고 결의함에 따라 종단 수익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총무원 재무부 재정국장 각운스님과 장영욱 재무부 사업팀장이 각 교구본사 교구종회를 순회하며 분담금에 의존하는 현재의 종단 재정구조의 한계와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종단 수익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향후 더 많은 교구본사에서 종단 수익사

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 재정국장 각운스님은 “교구종회 등을 찾아 종단 수익사업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하다보면 취지에 공감한 많은 스님들이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혀오는 등 차츰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본말사 주지 스님들의 지원과 독려가 승려노후복지기금이라는 뜻깊은 종단 목적사업기금으로 전환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인택 기자**

문화재청, ‘화엄경소’ 등 전적 8건 보물로 지정

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은 지난 2월24일 <대방광불화엄경소> 등 전적문화재 8건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했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는 <대방광불화엄경소>, <삼봉선생집> 권1, <수계선생비점맹호연집>, <조조본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38, <초조본 집대승상론> 권하, <반야심경소현정기(언해)> 등 총 8건이다. 보물 제1707호 <대방광불화엄경소>는 역사적 기록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의 불교문화 교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 유물이다.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복지재단, 미래복지포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오는 3일 오후2시 서울 전법회관 6층 프로그래밍실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적 기업 설립과 지원’을 주제로 미래복지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은 북한이탈주민 입국 2만 명 시대를 맞아 이들의 정착을 위한 사업 설명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허정철 기자**

초재현장 뒷이야기

마하연법당에 거는 기대



Daum사이트에 ‘조계사’ 명칭 삭제 논란이 일자 곧바로 복원됐다.

지역에서 경전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려는 모임이 열려 주목된다. 창원시불교연합회의 ‘마하연법당’에서 10년을 목표로 <법화경>을 비롯하여 여러 대승경전을 섭렵할 예정이다. 원전강독을 펼치는 창원 문성대학에 봉직중인 이덕진 교수는 불교학자로서 또는 교수로서 연구와 강의를 바쁜 와중에서도 지역 불자들이 함께 탁마를 시작한 이유를 “타인의 지식과 말을 빌려 불교를 이해하려는 한계를 극복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원전강독을 통해 직접 맞보도록 함”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현지의 가이드에게 말뚝을 건네주며 ‘말뚝을 박으면 티베트 불교의 힘을 더 강하게 할 것이다’며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이 내용이 온라인상에서 퍼지자 개신교인의 몰지각한 행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가서 나라방신을 시킬 것이냐”며 “예수와 상관없는 테러리스트 일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지역에서 경전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려는 모임이 열려 주목된다. 창원시불교연합회의 ‘마하연법당’에서 10년을 목표로 <법화경>을 비롯하여 여러 대승경전을 섭렵할 예정이다. 원전강독을 펼치는 창원 문성대학에 봉직중인 이덕진 교수는 불교학자로서 또는 교수로서 연구와 강의를 바쁜 와중에서도 지역 불자들이 함께 탁마를 시작한 이유를 “타인의 지식과 말을 빌려 불교를 이해하려는 한계를 극복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원전강독을 통해 직접 맞보도록 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여러 도움으로 조금의 공부를 하였고, 이제 당연히 회향하는 것이어서 무료강좌로 열리는 ‘10년 공부’의 시작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경전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겠지만,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기는 지난하다. 불경의 양이 방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어려운 한자어로 함축되어 있고, ‘문자는 언젠가는 버려야 할 손가락에 불과하다’는 일부의 인식 또한 불자들의 심도 깊은 공부를 망설이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할 것이다. 답습하는 불자가 바람직하다면 어려운 길을 굳이 선택할 까닭이 있을까마는, 길 없는 길을 홀로 개척하신 그 분의 제자라면 경전의 내용을 철저히 공부하고 깊이 새겨 확장되어야 마땅한 것이 아닐까. 부처님의 말씀은 현실의 문제에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살아있는 진리라는 적극적 실천의지가 널리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권순학** 경남서부지사장 gyonam108@ibulgyo.com

왜들 이러시나...

포털 ‘다음’, 사찰명 사라져 한국개신교인, 티베트 사원에 주기도문 말뚝 박아 ‘파문’

다 음 지 도 (http://local.daum.net)에서 사찰지명 정보가 사라져 불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소셜네트워커서비스 중의 하나인 페이스북 내 토론방인 부루나에는 지난 2월21일 “다음지도에서 사찰이 빠졌다”는 글이 실렸다. 부루나에는 “지도에 교회명은 버젓이 나타나 있는데 사찰명은 사라졌다”는 글과 함께 지도 사진을 실어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사진에 지역 교회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만 사찰명은 빠져 있는 상태였다. 위치를 알려주는 부호만 표시돼 있고 사찰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가 사라졌다.

이 사진을 본 불자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한 네티즌은 “서울 거리 이정표에도 사찰이 빠졌다.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세운 이정표에 사찰을 빼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다”며 “개인의 끊임없는 항의를 통해 담당자를 압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결정권자를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분이 나서서 상의하달(top-down)식으로 수정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내용이 확산되자 현재(2월25일) 사찰명이 다시 지도상에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한국 개신교 신자들이 티베트 불교사원에 주기도문을 쓴 말뚝을 박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네티즌이 중국여행에서 겪을 것을 바탕으로 한 사진과 일화가 소개되면서 알려졌다. 네티즌에 따르면 이 개신교인들은 티베트 불교 5대 사원 중 하나로 손꼽히는 라브랑스사원을 방문해 오체투

민족전통문화수호 및 자성과 쇄신결사를 위한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말사 주지 및 사부대중 결의문

대한민국 헌법은 제9조에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제69조에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며 대통령 취임 선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한 국가적 정책이나 지자체의 사업이 일부 특정종교단체의 주장에 따라 좌우되거나 폐기되는가 하면, 종교간 갈등과 조장을 방조하거나 또는 이용함으로써 국가적으로 보편, 육성해야 할 민족전통문화를 종교적 특혜인양 생색내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민족전통문화를 바라보는 인식입니다.

1700년 한국불교는 우리 민족 문화유산의 보고라 자부할 수 있을 만큼 수많은 문화와문화재를 유지, 보존해 오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석굴암이나 팔만대장경은 물론 수많은 불교의 문화재는 불교만의 전통문화가 아닌 우리 민족의 소중한 자산이자 민족전통문화입니다.

우리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말사 주지 및 사부대중은 현 정부의 사찰과 불교문화재를 비롯한 민족전통문화를 위협·멸시하고, 종교 갈등을 조장 또는 방조함은 물론 소통과 화합을 저해하는 작금의 사태를 바라보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원망과 연인에 앞서 우리의 자존을 스스로 지키지 못한 자괴감을 감추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본말사 사부대중은 민족전통문화를 수호하고, 한국불교의 자존을 회복하여 한국불교 증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총무원장스님께서 제안하신 ‘자성과 쇄신 결사’에 일심으로 동참할 것을 결의합니다.

그리하여, ‘자성과 쇄신 결사’를 실천을 위해 부단분, 계층별로 대중공사를 진행하여, 한국 불교가 국민에게 존경받는 불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실천해 나갈 것을 천명합니다.

- 생명과 환경의 가치를 지키고 뜻 생명의 공존과 번영을 추구해야 할 불제자로서 무리한 국책사업으로 인한 무분별한 파괴행위를 단호히 거부하고 생명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생명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 전통문화재의 80%를 보유하고 있는 불교가 전통문화 보존에 구심점이 되어야 함은 자명합니다. 이에 우리는 민족전통문화수호와 번영에 책임을 자각하고 문화적 자존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 자비와 보살정신을 구현하는 대승불교의 길이 우리의 길임을 다시 한 번 깊이 자각하고 이웃과 사회에 희망을 불씨가 되는 나눔실현을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전개해가겠습니다.
- 종교간, 계층간, 이념간의 차별과 불평등을 단호히 거부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평화, 공존의 길을 끝까지 모색해가겠습니다.
- 불교 본연의 모습을 확립하고 종교적 가르침을 바로 세워나가기 위한 끊임없는 성찰과 정진으로 수행의 길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 나무 석가모니불 · 나무 시아분사 석가모니불

불기2555년 2월 25일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말사 주지 및 사부대중 일동